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지휘용 퍼리프리스

베토벤과
말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1회 한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10

창립10주년

83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 횟수

427

기업음악회 공연 횟수

100+α

심포니송과 협연한 아티스트

5

창작곡 공연

NUMBERS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냈다. 2014년 창단된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 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에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고군분투한 결과를 소개한다.

20+

국내, 아시아 초연

70+

‘The Wing’ 콘서트

5

협연자 콩쿠르 우승자

50+

지휘자 함신익 해외 공연 지휘 횟수

50,000+

2023~24년 누적 관람객 수

지나온 1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10년을 향합니다



10년의 세월이 길게, 때로는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2014년 봄에 시작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험준한 산과 좁은 계곡, 강과 바다를 건너오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시작하셨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온실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하는 바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양분이 되어 우리가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거친 세파에 지쳐 있을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1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스타트라인에 서서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오케스트라 문화에 미력하나마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진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지친 삶을 살아가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열정적인 연주를 통한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예술감독 함신익

함신익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 덕분에 성장을 거듭하였고 10주년 기념 연주회의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이름에 걸맞게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 프로그램, 사회공헌 연주 등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전문성을 갖춘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수많은 어려움을 함신익 예술 감독님의 탁월한 지휘와 선견지명, 샘솟는 열정,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 이사진과 귀중한 후원자님들 사무국 직원들 열렬한 팬들과 관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잘 극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차세대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신익과 심포니송은 항상 사랑과 희망, 힐링을 주는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문형주

10년간의 여정, 지속가능한 열정과 감동

- **2014. 03**
심포니 S.O.N.G
이사회 발족
- **2014. 08. 23**
심포니 S.O.N.G
창단연주회
(서울 예술의전당)
- 세계최초 찾아가는
트럭 콘서트홀
'The Wing' 론칭
- '마스터즈 시리즈'
론칭
- '기업음악회'
7회
- '마스터즈 시리즈'
7회
- '기업음악회'
20여 회
- '마스터즈 시리즈'
6회
- '기업음악회'
60여 회
- '마스터즈 시리즈'
7회
- '기업음악회'
60여 회
- '마스터즈 시리즈'
6회
- '기업음악회'
50여 회
- '마스터즈 시리즈'
6회
- '기업음악회'
60여 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Christopher Theofanidis 테오파니디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아시아 초연)>
- 더빙 공연 14회
- 장윤석 바리톤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리랑 광시곡 (세계 초연) 노루페인트 주최 심포니 송 한중일 작곡가 공모 시리즈 우승자
- 더빙 공연 16회
- Deqing Wen 드칭 웬 추적 IV-수오나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Guo Yazhi, suona 구오 야지, 수오나 (국내초연)
- 더빙 공연 9회
- 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주)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우수전문예술단체' 선정
- 더빙 공연 7회
- **2019. 07.** 지휘자 함신익, 한화인재개발원 신입사원 리더십 강연
- **2019. 08** 삼성인재개발원 삼성부사장단 강연
- 더빙 공연 3회



마스터즈 시리즈

2014년 8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심포니 송의 공연 시리즈이다. 현대 작곡가들을 위촉하여 창작곡 세계 초연, 동양 악기와 협연하는 협주곡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시도들과 더불어 매달 완성도 높은 기획과 프로그램으로 정통 클래식학의 진수를 실현한다.

- 전람회의 그림 / 카르미나부라나
- 초여름밤의 낭만
- 비엔나 거장들의 감성을 찾아서
- 흥미있는 제목의 음악들
- 중국, HUNGARY, CZECH를 만나다
- 프랑스 로맨틱 음악의 향연
- 동·서양 천재들의 멋진 만남
- 한여름 밤의 꿈
- 베토벤 최고의 걸작 '장엄미사' 등

- '마스터즈 시리즈'
7회
- '기업음악회'
20여 회
- '마스터즈 시리즈'
7회
- '기업음악회'
20여 회
- '마스터즈 시리즈'
8회
- '기업음악회'
20여 회
- '챔버뮤직 시리즈'
신규 론칭
- '마스터즈 시리즈'
10회
- Renewal 'The Wing'
재출발
- '기업음악회'
40회
- '마스터즈 시리즈'
10회
- '기업음악회'
70회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0. 01.** 한화인재개발원 예술 인문학 특강
- 더빙 공연 2회
- Deqing Wen 드칭 웬 가야금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굿거리'(세계 초연) 심포니 송 창단 7주년 기념 위촉 작품
- Michael Daugherty 마이클 도허티 선셋스트립 (아시아 초연)
- 오예승 계속 노래하리 (세계 초연) 객석-심포니 송 Competition 우승자
- 더빙 공연 7회
- Chamber Music Series 4회 공연
- **2022. 06** 삼성 Well Up F&B 리더십 과정
- **2022. 08** 삼성인력개발원 삼성부사장단 강연
- 더빙 공연 5회
- 더빙 공연 10+회



THE WING, 날개

'모두를 위한 공연'이라는 가치 아래 지역별 불균형 및 문화예술 활동 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공연 품질 제고와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술 플랫폼이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심적 어려움을 겪는 관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펼침으로써 침체되어있던 문화 예술 공연의 활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3년부터는 노루홀딩스의 새로운 지원으로보다 큰 무대와 조명, 음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Renewal 'The Wing'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기업음악회

공연장을 갈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사내 음악회 '기업음악회'는 창립기념일·송년·신년 등 특정 행사를 기념하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 콘서트를 통해 직원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사기를 증진하기도 한다. 규모는 소규모 앙상블부터 풀 편성 대형 오케스트라까지 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편성되며, 직원들의 기호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구성으로 연출된다. 심포니 송은 매년 20여 회의 기업음악회를 연주해 오고 있으며, 최상의 관객 만족도를 자랑한다.

함신익과

심포니송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연을 통해 그의 잠재된 음악적 에너지를 표출하였고 이에 쏟아지는 찬사는 모두가 공감할 만했다. “I am very lucky to live somewhere with gloriously beautiful music. 이 아름다운 음악 어딘가에 숨 쉴 수 있어서 나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다.” 2014년 창단 음악회에서 쏟아진 평가 중 하나의 문구에서 심포니송의 존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평론가 류태형은 “순도 높은 집중력으로 그 정갈함이 전달된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객석에 앉아 무대 위 예술가와 공감하는 행복한 시간의 소중함을 너무나 새겼다.”라고 했으며 코로나가 창궐할 때의 공연에는 “마스크를 한 채 무대를 지켜보던 나는 전염병이라는 고난을 극복해 나갈 힘을 얻었다. 희망, 재난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낸 작곡가 베토벤이 21세기의 청중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라고도 평했다.

심포니송이 다정한 위로와 감성만을 표방한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클래식 연주를 넘어서서 새롭고 낯선 현대곡을 연주하고 초연하는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작곡가 성용원은 “심포니 송이 꾸준히 현대곡을 연주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걷는 점에 대해 작곡가로서 매우 감사하고, 이는 현대곡이 외면받는 한국 음악계의 기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 지금 우리의 팍팍한 지구살이의 위기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2022년에는 ‘모차르트와 스크리아빈’



공연 마지막 앵콜곡으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했다.

“마지막 앵콜곡인 우크라이나 국가. 저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는데 초대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한 관객의 토로는 가슴에 먹먹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사명 의식이 깃든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의 고군분투는 실상은 예술을 접하는 유니크한 태도와 시선에 닿아 있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



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 견할 수 있다.

세계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

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 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치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 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페인 메타나홀, 베이징 국립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10일,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쓰촨성 심포니홀 개관 공연을 선보였다. 쓰촨성 음악가협회 명예회장이자 유명 작곡가인 아오창쿤 교수는 “함신익 지휘자가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장엄한 추진력과 강한 예술적 매력으로 청중을 놀라게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을 ‘孤軍奮鬪(고군분투)’라고 표현한다. 고군분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벽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매분 매초를 벽차게 10년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소프라노
양귀비



심포니 송과의 만남 — 2022년 처음 마스터즈 시리즈로 처음 연주를 했었고 흥미롭고 세련된 프로그램과 기가 막힌 아티스트의 조합이 첫인상이었어요. 마에스트로 함신익의 훌륭한 지휘와 실력 있는 아티스트의 집합체 심포니 송의 연주를 접하고 나서는 '당연히 믿고 보는 심포니송'이 되었습니다.

독일 오페라 극장에서의 경험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쾰니츠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솔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오페라와 콘서트를 대략 700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 더불어 바로크부터 현대 작품들까지 연주하며 귀한 경험들을 쌓았어요. 아침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후에는 리하르트 바그너 그리고 저녁에는 모차르트 작품 리허설 및 연주로 하루 종일 극장에서 음악에 흠뻑 젖어 살았습니다.

2012년에 함신익 선생님께서 제가 몸담았던 독일 쾰니츠 오페라 극장에 객원 지휘자로 오셨어요. 그때 심포니 콘서트를 하셨는데 멋진 연주로 독일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또 아티스트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신익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연주 계획 — 7월에 대전에서 Mozart의 Exultate Jubilate 연주, 양산에서 Donizetti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주들이 있어요.

5월 마스터즈 시리즈 협연에 대한 기대 — 일찌감치 베토벤과 말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활동한 터라 베토벤과 말러 작품을 많이 연주했고 가장 좋아하는 작곡자들이기도 해서 이번 연주가 특히 더 애정이 갑니다. 타이틀 '베토벤과 말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처럼 관객께 두 작품의 부드러움을 흠뻑 느끼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양귀비

소프라노 양귀비는 예원, 예고, 서울대학교를 실기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재학시 KBS 신인 음악 콩쿠르, 해외 파견 음악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으며 유럽 전역의 국제 콩쿠르에서도 입상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2010년 졸업 후 독일 쾰니츠 오페라 극장에 주역 가수로 발탁되어 11년 동안 <리골레토> 질다, <루치아 디 라메르무어> 루치아, <마술피리> 파미나 등 50편 이상의 오페라에서 주역가수로 활약하였고 2010/11 시즌 독일 작센주 오페라 부문 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가수'에 오르기도 했다. 2015년에는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바스코 다 가마> 음반으로 유럽의

그레미 어워즈로 불리는 <에코 클래식 어워즈2015>에서 최고 편집상을 수상하였다. 유럽의 Das Ochester로부터 "번개와 같은 고음과 환상적인 무대로 모든 솔리스트 가운데 가장 특별한 환호를 받았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단, 덴마크 코펜하겐 로얄 왕립 오페라극장, 덴마크 국립 오페라단, 네덜란드 콘세르트 헤바우 홀란드 페스티벌 등 유럽 전역의 오페라 및 콘서트에 초대되어 7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친 바 있다. 현재는 2021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후학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Gustav Mahler
(1860~1911)
구스타프 말러

IV. 'Adagietto' from Symphony No. 5 in C-Sharp Minor
IV. '조금 느린 감정으로' 교향곡 제5번 중에서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드비히 판 베토벤

Soprano Scene and Aria 'Ah! Perfido'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Soprano 양귀비

Intermission
휴식

Gustav Mahler
(1860~1911)
구스타프 말러

Symphony No. 4 in G Major
교향곡 제4번

I. Bedächtigt. Nicht eilen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고
II. In gemächlicher Bewegung. Ohne Hast 많은 생동감을 가지되 빠르지 않게
III. Ruhvoll. Poco adagio 평온하게
IV. Sehr behaglich. Das himmlische Leben 매우 편안하게

Gustav Mahler Symphony No. 5: Adagiet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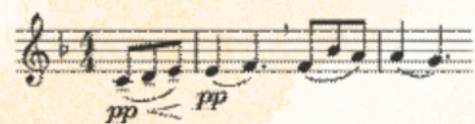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Adagietto. 아다지엠티, Sehr langsam 매우 느리게

보헤미아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 과묵하고 못된 성격의 완벽주의자였던 41살의 노총각 말러는 19살 연하의 미모의 알마(Alma Schindler, 1879~1964)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나쁜 남자가 이상형이던 알마 역시 말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도도한 이상류층 여성이 자신에게 절대복종하며 그의 사랑을 애걸하는 모습에 말러는 더욱 사랑에 빠지게 된다. 알마 역시 작곡가였지만 말러는 그녀에게 작곡을 포기하고 자신에게만 전념하라는 독선적 요청을 하는데 그녀는 이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변의 극심한 만류를 뿌리친 채 결국 1902년 말러와 결혼한다. 그 여름 말러는 그녀를 (여름이면 작곡에 전념했던) 호숫가 오두막집으로 데려가서 그가 막 작곡을 마친 교향곡 5번을 들려주고 선물했다. 그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동했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악장은 말러가 사랑하는 알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편지이다. 오직 죽음만이 그녀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있다는 암시를 읽을 수 있는데 말러는 아무런 애기 없이 이 악장의 악보만을 알마에게 편지하였고 알마는 말러의 사랑을 이 악보만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감동받는다. 말러는 이 사랑의 악장을 위한 시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Wie ich Dich liebe, Du meine Sonne,	나의 태양,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ich kann mit Worten Dir's nicht sagen.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Nur meine Sehnsucht kann ich Dir klagen	오직 나의 타오르는 갈망, 사랑, 그리고
und meine Liebe, meine Wonne!	축복만이 그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주제 1]

하프가 그녀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면 주제는 아름답게 현악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는데 위 시의 가사를 선율에 붙이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주제 2]



Gustav Mahler Symphony No. 5

IV. Adagietto.

Sehr langsam Very slow

Symphony No. 5 by Gustav Mahler (1860~1911) was composed in 1901 and 1902, mostly during the summer vacation at his holiday cottage at Maiernigg. The symphony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most conventional symphony that he had yet written, but from such an unconventional composer it still had many peculiarities. It almost has a four movement structure, as the first two can easily be viewed as essentially a whole. The symphony also ends with a rondo, in the classical style. Some peculiarities are the funeral march that opens the piece and the Adagietto for harp and strings that contrasts with the complex orchestration of the other movements. This is a stylistic and emotional contrast to the entire symphony has achieved so far and in particular a contrast to the spanning breadth of the Scherzo. It is a simple song using only strings (including harp) - a cartoon dating from the Symphony's Vienna premiere shows a tuba player during this movement, asleep. It conveys only a single mood and is structured in ABA form, with section B a modulation of the main melody. It exhibits "lonely and blissful contemplation" and "emotion intensely felt and yet restrained in expression."

There is a story (probably apocryphal) that the 4th movement was written as a testament of love to Alma, and that Mahler sent it to her with no accompanying words. Allegedly she understood his meaning and wrote him in return that he should come to her. According to a letter she wrote to Willem Mengelberg, the composer left a small poem regarding this movement:

Wie ich Dich liebe, Du meine Sonne,	In which way I love you, my sunbeam,
ich kann mit Worten Dir's nicht sagen.	I cannot tell you with words.

Nur meine Sehnsucht kann ich Dir klagen	Only my longing, my love and my bliss
---	---------------------------------------

und meine Liebe, meine Wonne!	can I with anguish declare.
-------------------------------	-----------------------------

Ludwig van Beethoven, Scene und Aria "Ah! Perfido", Op. 65

루트비히 반 베토벤, 연주회용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작품번호 65

1792년 22살의 젊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와서 빈 궁정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엘리(Antonio Salieri, 1750~1825)에게서 이태리 음악을 배우게 된다. 그는 살리에리로부터 이탈리아의 화려한 성악 양식을 전수받아 이 곡을 쓰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의 그의 피아노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고전주의에 머무르고 있지만 독특한 자신만의 색채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동시에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의 다채로운 음악적 어휘를 담아내고 있다. 악기 구성은 오보에와 트럼펫이 빠진 2관 편성에 플루트가 한 대만 사용되었다. 드라마틱한 쉼나(Scene)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아리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는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Pietro Metastasio, 1698~1782)의 오페라를 위한 대본 쉬로의 아킬레우스(Achille in Sciro)에서 차용되었다. 약 14분의 길이와 어려운 기교로 성악파트가 꽤 까다로운 데 1796년 라이프치히에서 모차르트의 친구 소프라노 요세파 두셱(Josepha Duscek, 1754~1824)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별을 고한 연인에 대한 원망과 미련, 애증이 결국 동정을 애걸하는데 까지 이르는 일종의 독백극(獨白劇)이다.

Ah! perfido, spergiuro,
barbaro traditor, tu parti?
e son questi gl'ultimi tuoi congedi?
ove s'intese tirannia più crudel?
Va, scelerato! va, pur fuggi da me,
l'ira de' Numi non fuggirai!
Se v'è giustizia in Ciel, se v'è pietà,
congiureranno a gara tutti a punirti!
Ombra seguace! presente, ovunque vai,
vedrò le mie vendette;
io già le godo immaginando;
i fulmini ti veggo già balenar d'intorno.
Ah no! ah no! fermate, vindici Dei!
risparmiate quel cor, ferite il mio!
s'ei non è più qual era son'io qual fui,
per lui vivea, voglio morir per lui!
Per pietà, non dirmi addio,
di te priva che farò?
tu lo sai, bell'idol mio!
io d'affanno morirò.
Ah crudel! tu vuoi ch'io mora!
tu non hai pietà di me?
perchè rendi a chi t'adora
così barbara mercè?
Dite voi, se in tanto affanno
non son degna di pietà

아, 못 믿을 사람이여, 뒤틀린 마음의
야만적인 배신자여, 나를 떠나가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마지막 이별인가요?
이 보다 잔인한 횡보가 있을까?
가버려요. 사악한 당신! 내게서 떠나세요!
하지만 하늘의 저주는 면치 못할 것이요.
하늘의 정의와 자비가 있다면
당신은 심판받을 것이요.
어디로 가든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난 나의 복수를 보게 될 것이요.
생각만 해도 이미 기쁘군요!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 눈에 선하군요.
아, 안 돼요! 안 돼! 복수의 신이시여!
그냥 그를 용서하시고 대신 나를 치세요.
그는 변했고 나는 예전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를 통해 살았으니 그를 위해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 당신은 잘 알거예요.
난 슬픔에 죽을 것입니다.
아! 잔인한 당신! 내가 죽기를 원하나요?
내게 동정이라곤 조금도 느끼지 못하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대하나요?
이 야만적인 것이 그 대가인가요?
말해주세요 절망에 빠진 내가
조금이라도 동정받을 가치가 없나요?

Ludwig van Beethoven,

Concert aria

"Ah! Perfido", Op. 65

"Ah! perfido" (Ah! Deceiver), Op. 65, is a concert aria for soprano and orchestra by Ludwig van Beethoven. The dramatic scena begins with a recitative in C major, taken from Pietro Metastasio's Achille in Sciro. The aria "Per pietà, non dirmi addio" (For pity's sake, do not bid me farewell) is set in the key of E-flat major and its lyricist is anonymous. The work was first performed on 21 November 1796 in the Theater am Ranstädter Tor in Leipzig, with soprano Josepha Duscek as the soloist. The singer, a friend of Mozart in Prague, advertised it as "an Italian scena written by Beethoven for Mad. Duscek", possibly to raise interest rather than a statement about a dedication. The only extant manuscript by a copyist has a dedication to "Signora Comtessa di Clari", Countess Josephine of Clary-Aldringen.

Ah! perfido, spergiuro,
barbaro traditor, tu parti?
e son questi gl'ultimi tuoi congedi?
ove s'intese tirannia più crudel?
Va, scelerato! va, pur fuggi da me,
l'ira de' Numi non fuggirai!
Se v'è giustizia in Ciel, se v'è pietà,
congiureranno a gara tutti a punirti!
Ombra seguace! presente, ovunque vai,
vedrò le mie vendette;
io già le godo immaginando;
i fulmini ti veggo già balenar d'intorno.
Ah no! ah no! fermate, vindici Dei!
risparmiate quel cor, ferite il mio!
s'ei non è più qual era son'io qual fui,
per lui vivea, voglio morir per lui!

Per pietà, non dirmi addio,
di te priva che farò?
tu lo sai, bell'idol mio!
io d'affanno morirò.

Gustav Mahler Symphony No. 4 in Major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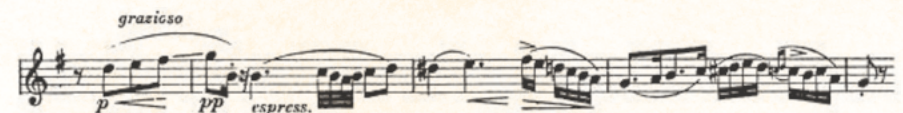
말러 교향곡 제4번

말러는 1900년 본인의 가곡 “천상의 삶(Das himmlische Leben, 1892)”을 인용하는 교향곡 4번을 완성한다. 사실 말러는 이 노래를 3번 교향곡의 7, 8악장으로 쓰려고 하였으나 독립된 교향곡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모차르트의 일련의 후기 세 개의 교향곡 (제39, 40, 31번) 시리즈의 완성이자 결론으로서 41번 교향곡을 규정할 수 있듯이 이 교향곡은 그의 초기 4개 교향곡(교향곡 1번 “거인”, 2번 “부활”, 3번, 4번 “천상의 삶”) 시리즈의 결론적 성격이 짙다. 이 일련의 교향곡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이상적 완전체(完全體), 죽음의 보상적 대안으로서 평화와 천상의 삶을 이야기한다.

1악장 **Bedächtig, nicht eilen** ————— 적당한 빠르기로, 서두르지 않고



[도입부 동기]
플루트와 슬레이벨(징글벨)의 신선한 도입이 동화적인 마술을 부리면 간결하고 기분 좋은 우아한 첫 주제가 아름답게 등장한다.



[제1주제]
천진난만하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듯 한 주제가 반복되고 저음부의 ‘통 통’ 예쁘게 튀어 오르는 대선율이 기분 좋다.



[제2주제]
첼로에 의한 두 번째 주제 역시 긍정과 서정성이 어우러져 담백하다. ‘흠’ 없는 아이의 영혼과 그의 죽음을 암시하듯 그의 교향곡 3번이나 5번에 보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심각하고 어두운 묘사는 다소 배제되어 있다.



[종결주제]
제시부는 동요 같은 순수함으로 마무리 짓는다. 다시 캐롤을 연상시키는 슬레이벨에 의해 발전부가 시작되면 제1주제는 여러 모습으로 변주되고 삶의 어두운 장면이 조금씩 드러나 휘몰아친다. 말러 특유의 감정의 기복이 거세질 즈음 불현듯 동네 놀이터에서나 들려올 듯한 아이들의 콧노래(발전부 중반 주제)가 등장한다.

Ah crudel! tu vuoi ch'io mora!
tu non hai pietà di me?
perchè rendi a chi t'adora
così barbara mercè?
Dite voi, se in tanto affanno
non son degna di pietà?

Ah! Faithless one, perjured,
barbarous betrayer, do you leave?
And are these your last farewells?
Who ever suffered such cruel tyranny?
Go, wicked man! Go, run from me,
The wrath of the Gods you shall not escape!

If there is justice in Heaven, if there is mercy,
They will join together to punish you!
Pursuing shade, present wherever you go,
I shall see my vengeance;
I already enjoy it in my mind;
I see already lightning flashing about you.
Ah no, ah no, stop, Gods of vengeance!
Spare that heart, strike mine!
Though he has changed, I am what I was,
Through him I lived, I would die for him!

For pity, do not bid me farewell,
What shall I do without you?
You know, fair beloved,
I shall die troubled.

Ah, cruel one, you would that I die!
Have you no pity for me?
Why do you treat one who adores you
With such barbarous reward?
Tell me if in such trouble
Am I not worthy of pity?

Gustav Mahler
Symphony No. 4
in G Major

Gustav Mahler's Symphony No. 4 in G major, composed from 1899 to 1900, incorporates elements from a song he had written in 1892, “Das himmlische



[발전부 중반 주제]
민속 선율에 가까워 보이거나 사실 이는 첼로에 의한 두 번째 주제의 변주이다. 이에 리듬의 변화를 주어 플루트 아이의 순수함을 기가 막히게 묘사한다. 교향곡 5번에서 쓰일 주제가 들리기도 하고 앞선 주제들이 여러 성격으로 변모하여 등장한다. 재현부는 소나타 형식을 가감 없이 따르며 모든 주제가 더욱 힘차게 반복된다.

2악장 **In gemächlicher Bewegung, ohne Hast** ————— 여유있게 움직이며 급하지 않게
Scherzo and Trio 스케르초와 트리오



[주제: “죽음의 신”]
제1주제는 솔로 바이올린에 의해 시작되는데 위 악보의 왼쪽 지시 사항을 보면 기본 음정을 한음씩 위로 (G->A, D->E, A->B, E->F#) 조율하게 되어 있다. 강하고 독특한 성격의 바이올린 소리를 연출한다. 이 바이올린 솔로 주제는 죽음의 신(Freund Hein, 저승사자, 해골의 모습으로 죽음의 검을 들고 피들(Fiddle, 현대의 바이올린)을 연주)을 묘사한다.
선율은 반응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음의 음산함을 3박 춤곡 바탕위에 기괴하게 풀어낸다.

[죽음의 신, Freund Hein]
이 죽음의 주제와는 사뭇 대조적인 평안함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2주제)과 수차례 교차된다.



[제2주제 후반부]
여러 번의 새소리와 가슴 따뜻한 위로(2주제 후반부)를 무색하게 하듯 죽음의 그림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아이의 놀라는 듯한 외침이 목관에서 나올 때 불길한 예감이 든다.

3악장 **Ruhevoll, poco adagio** ————— 평화롭게 다소 느리게
theme and variations 주제와 변주



[변주 주제]
조용한 장례식을 묘사한다. 슬픔과 안도, 추억과 눈물, 안타까움과 위로가 공존한다. 변주곡의 형식을 따르는데 변주 주제가 조용한 기도와 눈물로 반복되는 가운데 부차 주제가 뒤따르며 가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끝없이 추락하는 제스처의 반복으로 묘사한다.

Leben” (“The Heavenly Life”), sung by a soprano in the symphony's Finale. Initially conceived with six movements, alternating between instrumental and vocal pieces, the final version, completed in August 1900, consists of four movements: Bedächtig, nicht eilen (sonata form); In gemächlicher Bewegung, ohne Hast (scherzo and trio); Ruhevoll, poco adagio (double theme and variations); and Sehr behaglich (strophic variations). Premiering in Munich on 25 November 1901, the symphony faced criticism for its perceived ambiguity and was unfavorably compared to Mahler's Second Symphony. Despite this, Mahler conducted further performances, and the symphony gained popularity posthumously, particularly contributing to Mahler's rise in popularity after World War I.

Structured with cyclic themes, the symphony weaves anticipations of the Finale's main theme throughout preceding movements. Characterized by neoclassical elements, the first movement's complexity lies in its development section. The second movement depicts Death with fiddle scherzos, contrasted with Ländler-like trios. The third movement's themes are varied before culminating in a powerful coda, while the Finale features verses from “Das himmlische Leben” interspersed with refrains from the first movement. Themes from this symphony resonate in Mahler's other works, such as his Second, Third, and Fifth Symphonies.
Fourth movement text:

Das himmlische Leben
(aus Des Knaben Wunderhorn)
Wir genießen die himmlischen Freuden,
D'rum tun wir das Irdische meiden.
Kein weltlich' Getümmel
Hört man nicht im Himmel!
Lebt alles in sanftester Ruh'.



[부차 주제1]

울부짖고 분노하다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변주의 형식 안에서 수차례 반복된다. 제1번 교향곡 “거인”에서 등장했던 어두운 행진곡풍의 동기가 인용되고 발전되어 역설적으로 즐거운 추억의 회상으로 변모한다.



[부차 주제2]

다시 망자(亡子)를 보내는 눈물의 노래가 나오며 이 일련의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후, 마치 아이의 영혼을 차마 보내지 못하다가 천상을 향해 떠나보내듯 1악장의 발전부에서 들렸던 주제가 금관에 의해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다시 조용히 음악은 가라앉고 천상을 향하듯 신비로운 음형이 악장의 마지막 순간을 승화시킨다.

4악장 **Sehr behaglich** ————— 매우 편안하게 strophic 유절형식



[도입부 동기]

교향곡의 전형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가곡 형식(유절형식(有節形式), 같은 멜로디로 가사의 절을 반복)을 취했다. 도입부 동기가 편안하게 천국의 문을 열면 소프라노 솔로는 천국의 삶을 노래한다. 가사는 당대 유행하던 세속 민중 시집 “어린이의 이상한 뽕피리”에서 차용하였다. 1악장 도입부 주제가 요란하게 반복되며 이 천상의 노래를 뒤따르지만, 음악은 충실하게 가사가 그리는 그곳의 평화를 묘사한다.



[소프라노 선율]

가사에 ‘어린이’, ‘성 누가’와 ‘베드로’ 등의 신약 성서의 인물과 개념이 등장하지만, 말러가 그리는 천상의 모습은 그의 2번 교향곡 “부활”에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유대교 적 종말론 (Eschatology)에 기인한다. 물론 1897년 빈 궁정오페라단 지휘자로서의 임명에 맞추어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지만, 그것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의 유대교적 국가 회복과 민중 해방의 결과로써의 ‘낙원(樂園)’의 개념은 인류 구속사의 결론으로서 절대 초월자의 임재에 동참하게 된다는 기독교식의 ‘천국’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더군다나 가톨릭교회의 소위 후세에 가미된 비성경적 천국의 이미지마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중립성 옹호와 인본주의적 구원의 결과로서의 평화 내지는 이상향(理想郷)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죽음의 보상(補償)으로서 천상(내지는 영적 부활)의 존재적 의미에 집중한다. 말러는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늘 상상하곤 하였다. 순수하고 죄 없는 어린 영혼이 사망의 억울한 처우를 오히려 천상에서 행복한 삶으로 보상받을 것이라 여기며 죽음을 비극이 아닌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단계로 여겼다. 하지만 막상 7년 후 그의 딸 마리아가 성홍열로 실제로 죽게 되고 본인 또한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자 그는 상황을 잘 감내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정신병까지 얻게 된다. 그로부터 4년 후 1911년 5월18일 5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Wir führen ein englisches Leben,
Sind dennoch ganz lustig daneben;
Wir tanzen und springen,
Wir hüpfen und singen,
Sankt Peter im Himmel sieht zu.
Johannes das Lämmlein auslasset,
Der Metzger Herodes d’rauf passet.
Wir führen ein geduldig’s,
Unschuldig’s, geduldig’s,
Ein liebliches Lämmlein zu Tod.
Sankt Lucas den Ochsen tät schlachten
Ohn’ einig’s Bedenken und Achten.
Der Wein kost’ kein Heller
Im himmlischen Keller;
Die Englein, die backen das Brot.

Gut’ Kräuter von allerhand Arten,
Die wachsen im himmlischen Garten,
Gut’ Spargel, Fisolen
Und was wir nur wollen.
Ganze Schüsseln voll sind uns bereit!
Gut’ Äpfel, gut’ Birn’ und gut’ Trauben;
Die Gärtner, die alles erlauben.
Willst Rehbock, willst Hasen,
Auf offener Straßen
Sie laufen herbei!
Sollt’ ein Fasttag etwa kommen,
Alle Fische gleich mit Freuden
angeschwommen!
Dort läuft schon Sankt Peter
Mit Netz und mit Köder
Zum himmlischen Weiher hinein.
Sankt Martha die Köchin muß sein.

Kein’ Musik ist ja nicht auf Erden,
Die unsrer verglichen kann werden.
Elftausend Jungfrauen
Zu tanzen sich trauen.
Sankt Ursula selbst dazu lacht.
Kein’ Musik ist ja nicht auf Erden,
Die unsrer verglichen kann werden.
Die englischen Stimmen
Ermuntern die Sinnen,
Daß alles für Freuden erwacht.

The Heavenly Life
(from Des Knaben Wunderhorn)
We enjoy heavenly pleasures

<Das himmlische Leben>

(aus Des Knaben Wunderhorn)
Wir genießen die himmlischen Freuden,
D’rum tun wir das Irdische meiden.
Kein weltlich’ Getümmel Hört man nicht im
Himmel!
Lebt alles in sanftester Ruh’.
Wir führen ein englisches Leben,
Sind dennoch ganz lustig daneben;
Wir tanzen und springen, Wir hüpfen und
singen,
Sanct Peter im Himmel sieht zu.
Johannes das Lämmlein auslasset,
Der Metzger Herodes d’rauf passet. Wir
führen ein geduldig’s, Unschuldig’s, geduldig’s,

Ein liebliches Lämmlein zu Tod.
Sanct Lucas den Ochsen tät schlachten
Ohn’ einig’s Bedenken und Achten.
Der Wein kost’ kein Heller Im himmlischen
Keller;
Die Englein, die backen das Brot.

Gut’ Kräuter von allerhand Arten,
Die wachsen im himmlischen Garten,
Gut’ Spargel, Fisolen
Und was wir nur wollen.
Ganze Schüsseln voll sind uns bereit!
Gut’ Äpfel, gut’ Birn’ und gut’ Trauben;
Die Gärtner, die alles erlauben.
Willst Rehbock, willst Hasen, Auf offener
Straßen
Sie laufen herbei!

Sollt’ ein Fasttag etwa kommen,
Alle Fische gleich mit Freuden
angeschwommen!
Dort läuft schon Sanct Peter Mit Netz
und mit Köder
Zum himmlischen Weiher hinein.
Sanct Martha die Köchin muß sein.

Kein’ Musik ist ja nicht auf Erden,
Die unsrer verglichen kann werden.
Elftausend Jungfrauen
Zu tanzen sich trauen.
Sanct Ursula selbst dazu lacht. Kein’ Musik ist
ja nicht auf Erden, Die unsrer verglichen kann
werden. Cäcilia mit ihren Verwandten
Sind treffliche Hofmusikanten! Die
englischen Stimmen Ermuntern die Sinnen,
Daß alles für Freuden erwacht.

<천국의 삶>

(민중시집 ‘어린이의 이상한 뽕피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즐기며 땅에 속한 것들을
피한다.
세상의 그 어떤 혼돈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우리는 천사의
삶을 산다! 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춤을 추고 뛰며 노래하며 흥겨워한다!
성 베드로가 바라본다!
제자 요한이 어린 양을 내놓으면,
도살자 헤롯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침착한, 죄 없는,
침착한 그 사랑스런 어린 양을

죽음으로 이끈다!
성 누가는 아무 고민이나 상념 없이
황소를 살육하고
천국 술 저장소의 포도주는 모두 무료이다.
천사들이 빵을 굽는다.

다양한 양질의 약초들이 천상의 정원에서
자란다!
좋은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놓인 접시에 가득하다.
좋은 사과, 배 그리고 포도들,
정원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거리 위의 산양, 토끼를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
당장 달려온다!

금식의 날이 다가올 때면,
모든 물고기들이 즐거이 유영한다!
투망과 미끼를 가지고 하늘의 연못을 향해
성 베드로는 달려간다!
성 마르타가 요리사일 것이다!

우리의 음악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음악이 울린다.
1만 1천 명의 처녀들이 춤을 춘다!
성 우슬라 역시 즐거워한다! 우리의 음악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음악이 울린다.
친척들과 함께 온 체칠리아는
궁정 음악가들이다!
천사의 목소리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여
모든 것을 기쁨으로 깨어나게 한다.

and therefore avoid the earthly stuff.
No worldly tumult
is to be heard in heaven.
All live in greatest peace.
We lead angelic lives,
yet have a merry time of it besides.
We dance and we spring,
We skip and we sing.
Saint Peter in heaven looks on.
John lets the lambkin out,
and Herod the Butcher lies in wait for it.
We lead a patient,
an innocent, patient,
dear little lamb to its death.
Saint Luke slaughters the ox
without any thought or concern.
Wine doesn’t cost a penny
in the heavenly cellars;
The angels bake the bread.

Good greens of every sort
grow in the heavenly vegetable patch,
good asparagus, string beans,
and whatever we want.
Whole dishfuls are set for us!
Good apples, good pears and good grapes,
and gardeners who allow everything!
If you want roebuck or hare,
on the public streets
they come running right up.
Should a fast day come along,
all the fishes at once come swimming with
joy.
There goes Saint Peter running
with his net and his bait
to the heavenly pond.
Saint Martha must be the cook.

There is just no music on earth
that can compare to ours.
Even the eleven thousand virgins
venture to dance,
and Saint Ursula herself has to laugh.
There is just no music on earth
that can compare to ours.
Cecilia and all her relations
make excellent court musicians.
The angelic voices
gladden our senses,
so that all awaken for joy.



심포니송의 프로들



예술감독	함신익			
약장	송지원			
바이올린	박진형 김지연 박묘정 박지윤 이서영 정재희 최주은	김민하 김희영 박승훈 박지은 이수빈 조성인	김영은 남 린 박원민 오하은 이지현 최보경	김정현 문수빈 박지민 옥영미 전지은 최수영
비올라	Guan Qi 장윤정	노소희 정민	박영주 조혜민	안예림 황유선
첼로	이경미 이혜인 한은미	김민지 정다인 허규희	김재은 정혜술	오소연 최영
더블베이스	고부현 윤영진	조형욱 윤철원	강선률	문지수
플루트	김소희	하중수	서은설	조이삭
피콜로	서은설	조이삭		
오보에	최효정	박수진	이혜빈	
잉글리시 호른	이혜빈			
클라리넷	Ma Yue	김민찬	김용호	
이플렛 클라리넷	김민찬			
베이스 클라리넷	김용호			
바순	김윤지	이윤후	김지혜	
콘트라 바순	김지혜			
호른	조종현	안지환	최정은	허건행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빈상욱	
팀파니	남기랑			
타악기	김슬민	서준호	엄휘원	정예나
하프	정민정			
크리에이티브팀	박종호 이민하	신현숙 이수민	김태연 이창훈	유소정 정다은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함신익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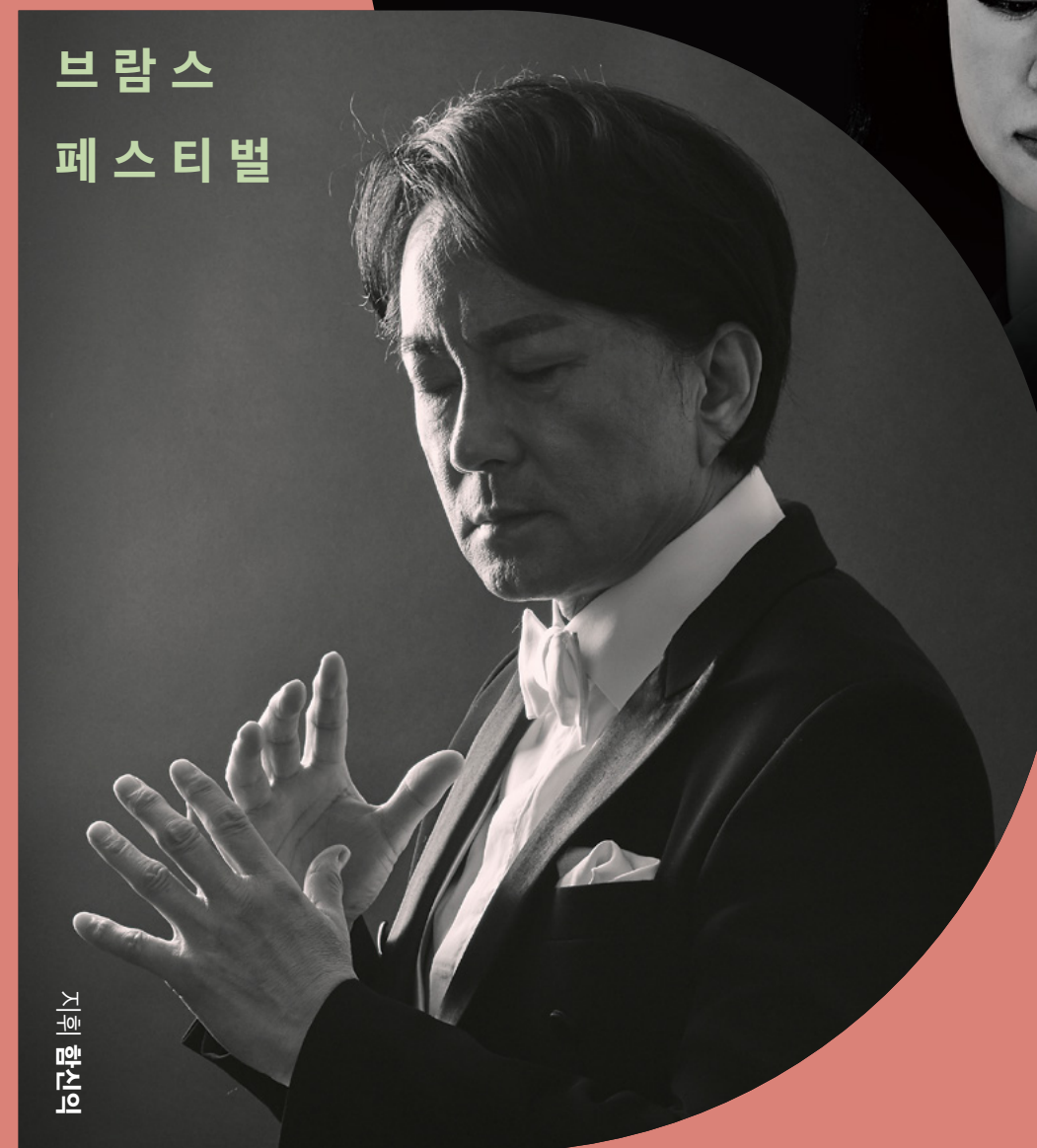
10 SYMPHONY SONG
10TH ANNIVERSARY
2014-2024

함신익
ORCHESTRA

DOUBLE THE BRAHMS

첼로 주연선, 바이올린 김다미

브람스
페스티벌



지휘 함신익

브람스 | 이중 협주곡
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for Violin and Cello

브람스 | 세레나데 제1번
Brahms | Serenade No. 1
in D Major

06.27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LOTTE CONCERT HALL yes24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SEBONG FST TSE DSK K2Webtech GOLDFON 화광교역(주) 코스모스약기 시애틀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이올린
수진수

REMEMBERING DVOŘÁK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드칭 웬 |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Deqing Wen | Paraphrasing Dvořák World Premiere

드보르자크 | 바이올린 협주곡
Dvořák | Violin Concerto in a minor

드보르자크 | 전설
Dvořák | Legends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신의

피아노
영영

RACHMANINOFF SPECIA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지휘 함신의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Rachmaninoff | Symphony
No. 2 in e minor

10.21
MON 7:30PM

LOTTE
CONCERT HALL

SCHUBERT AND BRAHMS

피아노 박종혜

슈베르트와
브람스

슈베르트 | 교향곡 제4번 '비극적'
Schubert | Symphony No. 4
in c minor 'Tragic'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rahms |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11.28

THU 7:30PM



지휘 함신의

01.1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영웅적 신년음악회
Heroic New Year Concert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김응수

02.22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Schoenfield & Smetana

- 완필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발레
- 지휘 함신의, 피아노 김태형



03.2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Shostakovich & Mendelssohn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한수진

04.19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베토벤과 베토벤
Beethoven and Beethoven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김준형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베토벤과 말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 말리 교향곡 제5번 올림다단조 중 '아다지에도'
- 베토벤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 말리 교향곡 제4번 사장조
- 지휘 함신의, 소프라노 양귀비

2024 마스터즈 시리즈에

SYMPHONY S.O.N.G 2024 MASTERS SERIES

함신의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당신을 초대합니다

06.27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브람스 페스티벌
Double the Brahms

- 브람스 이중 협주곡 가단조
- 브람스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주연선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Remembering Dvořák

- 드칭 웬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 드보르자크 '전설'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박진수

10.21

MON 7:30PM
LOTTE CONCERT HAL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Special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단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유영욱

11.28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박종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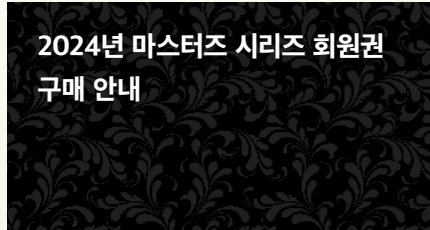
12.27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함신의 국립합창단
- 소프라노 오미선
-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정인호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5월 31일까지 구매 시	10%	R석 5회	-500,000원 ▶	450,000원
		S석 5회	-350,000원 ▶	315,000원
		A석 5회	-250,000원 ▶	225,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논현동 EG빌딩)
B1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 소	_____		
	Mobile	_____		
	E-mail	_____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 소	_____		
	Mobile	_____		
	E-mail	_____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힘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터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터, 바이오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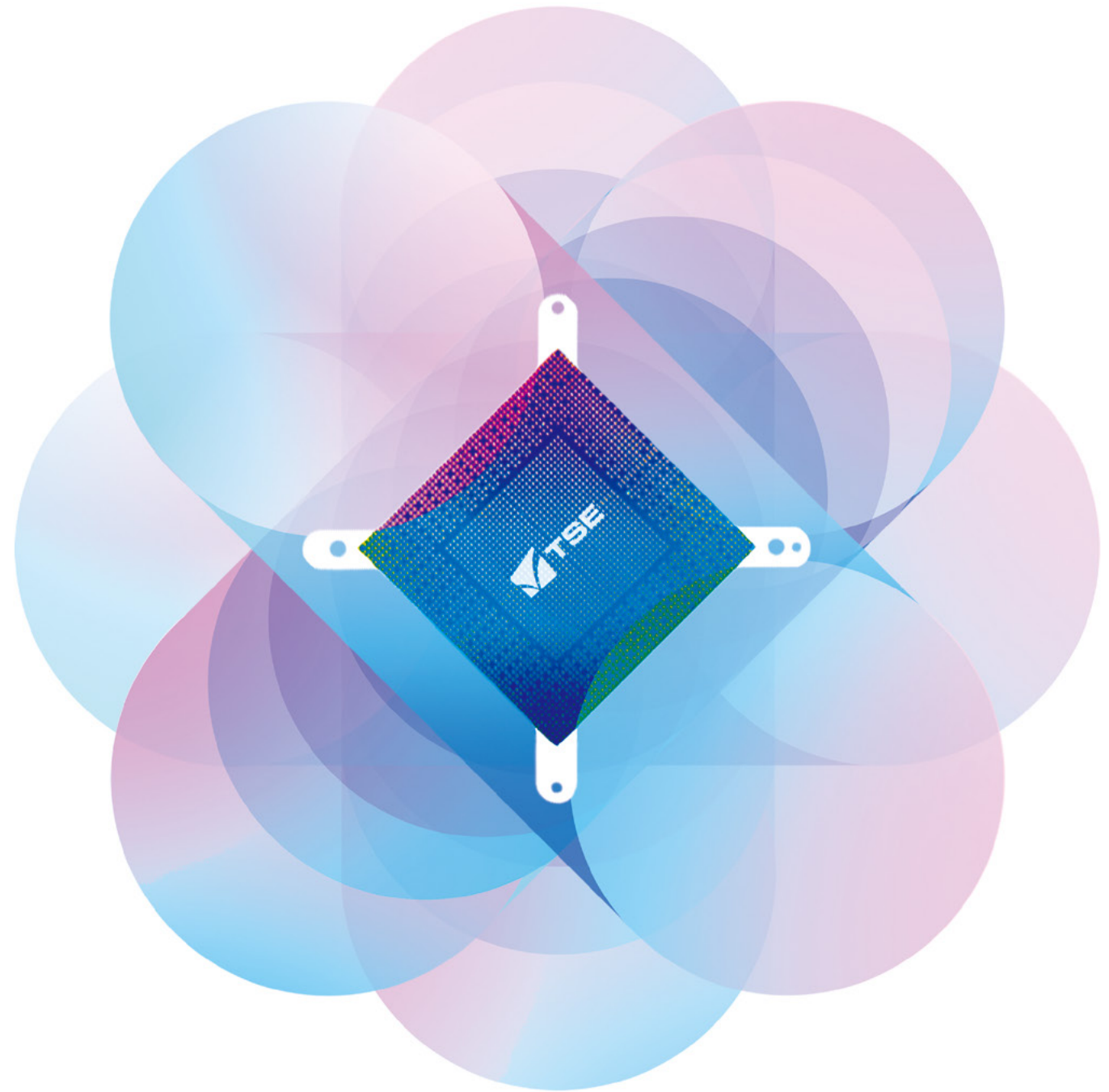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leuto™
레우토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